

봉축지상법석

“잘살려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사월 초파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주만유의 근원인 생명 바탕의 기본입니다. 생명마다 시간과 공간 이전의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참진지혜, 마음자리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 이전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본 바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태어난 뜻이 이와 같아서 천지등불이 되어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의 본 뜻을 알려주고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우주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생명이 곧 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마다 깊이 활짝 열려져 있고 생산법이 확실합니다. 모든 생명이 세로 하나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한 생명의 뜻을 직시하여 공극에는 마음 근본자리가 얼마나 밝은가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살려면 사는 법을 알아야 하고 사는 법을 알려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밝으려면 보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은 닦는 것도 쌓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뜻

그것이 확실하면 다 수용할 줄 알고 몸과 마음이 밝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해됩니다.

지구는 공전 자전과 종말로 짝이 되고 먼지로 분해해 공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나의 다함이 없는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성정정을 견성하는 원리입니다. 견성은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자 생명의 다함이 없는 기본 원천입니다. 지혜는 상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항상 도 공도 아닌 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대는 한마디로 나무 한 그루와 같고 지구처럼 큰 나무그늘과 같습니다.

나무는 처음 생길 때 불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한그루가 불을 만나면 나무는 불로 바뀌어 버립니다. 불로 한번 바뀌면 다시 나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막힌 인연입니까?

부처님 말씀에 복은 하늘이 주고 진리가 주고 자연이 주고 천지가 주고 상대가 준다고 했습니다. 마

할 안 스님 <조계산 천자암 조실>

은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풀 한 포기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우주 시방 법계의 모든 생명의 핵심이 되고 전체의 생명은 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비단 인간 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생명이 합부로 하지 못하고 내 생명만을 위한 월권 또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산법이 거처서 시작됩니다.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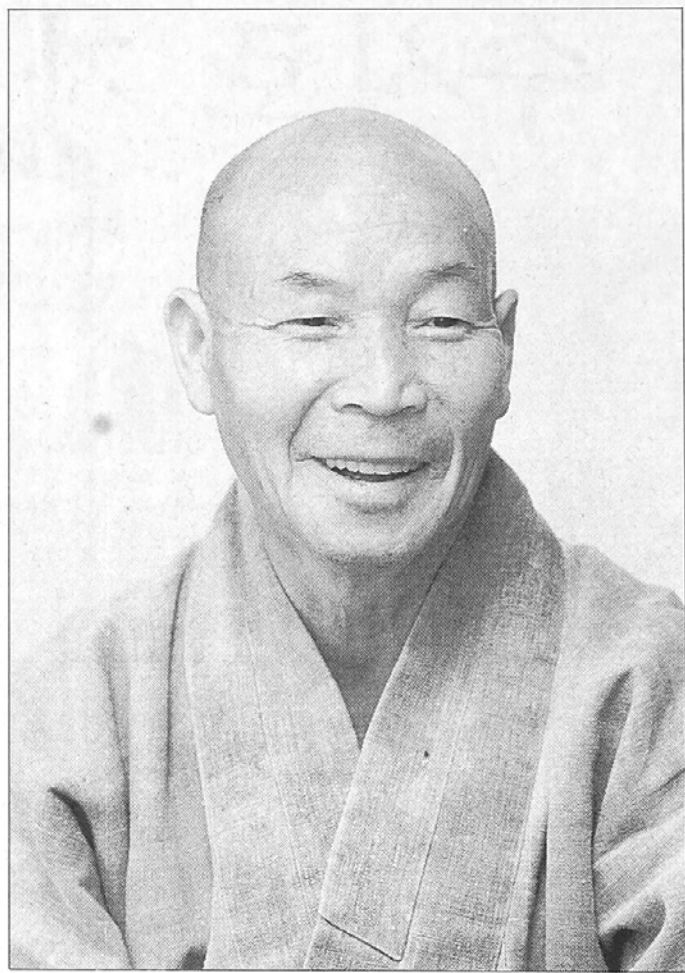
연이 자유롭고 끝없이 부자유하며 걸어가는 것까지 모두가 똑같다 이겁니다. 뜻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나와 상대가 동일한 터전에서 상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중에 할 일을 먼저하고 먼저 할 일은 나중에 하면서 일은 본인이 그르쳐 놓고 세상사람들이 나를 속였다고, 세상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상하다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 넘기는데 실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비어버리고 장사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도를 닦든지 영발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은 제불성현과 똑같습니다.

잘 살려면 밝아야 하고 밝으려면 천진지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생도 공부하는 상근기가 필요 없고 소승·대승이 필요 없고 일등이 필요 없고 근기의 맑고 직음이 필요없습니다. 공부가 안되는 것은 마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고 오직 마음만 정해지면



입니다. 청정 우주법계를 관장하는 것은 비로자나의 법체가 아니고 비로자나의 모양이 아니고 비로자나의 활동이 아닙니다.

옛날에 방거사가 미조 스님에게 찾아가서 “스님 일체의 상대와 더불어 벗을하지 않는 자기 누구입니까” 하니 “한입으로 유무의 삼매상을 다 소화시켜야 나에게 이르러라” 했습니다. 숨이 떨어지기 전에 시간을 미루지 말고 때가 되면 인정사정 없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도 우주 공간 속의 지구가 움직입니다. 모든 생명이 동시동처에서 같이 호흡을 해도 호흡의 기본장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천진지혜의 양도 그와 같습니다. 부귀영화나 제불 성현의 자격은 언제든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되는 이가 설계를 확실한 불확실한건 요법을 처리할 줄 알면됩니다.

마음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마**입니다. 풀 한 포기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한 생명이 우주 시방법계의 주인 되는 이치 알게 됩니다.

‘나’를 비워야 바로보고 쓸줄아는 지혜 얻어 믿음 확실할 때 기도성취...회향하는 삶 돼야

리가 기억하는 인류의 역사는 5천 년인데 종합평가를 해 볼때 위대한 정치인도 없고 위대한 철인도 없고 위대한 학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커도 더 커야하고 아무리 해도 더 잘해야 하니 결국 이만 있고 눈이 없거든요. 지구가 돌 뿐이지 어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는 눈이 진짜 주인의 눈이요, 답할 줄 아는 눈이 자성의 참된 표현입니다. 자기 생명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가 하나임을 분명히 직시합니다. 하나에서 유무의 생명이 탄생되고, 걸어가는 길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생명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이 때문입니다. 끝없이 밝고 끝없이 어둡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생명이 시작했는데 생명을 놓아두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입니다.

생명의 주인 ‘마음’

하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겨도 무생입니다. 무생지(無生地)에서 생이 탄생되면 그 생 자체에 하자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큰 것은 닦는 것이 아니고 쌓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았을 때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다 수용하고 심신이 공해야 합니다. 바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 그릇에 차이가 있다면 지구가 한번 한번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바로 보고 쓸 줄 아는 이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타버리고, 차가워서 견딜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얼어버립니다.

예전에 광양 백운사에서 4년동안 독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가 낮으로 손을 베었습니다. 손을 쥐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방바닥에 피가 흥건해지더군요.

“나이 50이 되도록 이렇게 가난 하더냐”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와요. 피를 보고 웃음이 나오고, 내가 이래야만 성불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 된장 국을 끓여 먹고 참선에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에 비로자나 여래상 같은 큰 부처님이 나를 팔베개로 끌

어 안으며 “너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제불성현도 타고난 것들을 쓰지 못하면 다 녹슬어 버린단다. 다 그렇게 외로워 단다. 너만 외롭냐” 이렇게 얘기하고 벌떡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하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성불하려면 하니 가지고 있는 도를 모두다 주시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잘못 자기 탓

내 이름이 환안입니다. 살아있는 눈인데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죽은 눈이 되려하면 죽은 눈이 되고 또다시 산 눈이 되려고하면 산 눈이 되고해요. 이렇듯 생명을 확실해야 합니다. 각자 생명을 따져놓고 보면 어느 생명이든지 뒷처리를 다해야 하고 책

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세상에 괴로운 것은 부모한테 의지해야하고 자식, 돈, 자기인격, 상대에 의지해야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나는 밤을 한 줄 때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부처님이라면 말씀이 들으시오, 내가 과거 세상에는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상황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끝없이 의지해 왔지만 끝없이 모든 상대를 다 빛을 내게하고 상대를 다 보았느니까 하고 나를 의지하려는 곳에 다 기쁨만 주겠습니까” 합니다.

공부를 안하는 사람이 계를 지키려 하고 경을 보며 참선하려고, 화두에 들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림이 없습니다. 때를 지 않는 확실함이 있기 때문

마음이 얼마만큼 확실하나 체증 하나, 바탕이 얼마만큼 확실하나, 이렇지언정 어디 딴 데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무상대도 무생지서 탄생하고 불은 뜨거운 것에서 끝나지 크다 작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의 원리로 화하기 때문이요, 무생지서 생이 탄생된다면 그처럼 불과 같이 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것이 불확실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我)가 공해버려야 합니다.

심신의 건강을 해아리는 것도 우주법계가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저장하면 끝나기 전에 다시 되돌려도 그 인격과 성품의 경지를 다 알려 주고도 모자라지 않고 이처럼 건강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건강해서 건강의 댓가가 일체 중생에게 회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불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고 성불 안하면 안 돌아올 것입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희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희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희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심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백 담긴 자제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들에게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짜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였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포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독심요림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